

## 자기애성 성격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실제-이상 자기불일치, 정서조절 양식 차이 검증\*

금 도 연

유 금 란<sup>†</sup>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자기애성 성격의 하위집단을 확인하고, 실제-이상 자기 불일치, 정서조절 양식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대, 3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013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SPSS 21.0을 통해 빈도,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Mplus 8.0을 활용하여 잠재프로파일 집단을 분석하였다. 자기애성 성격 잠재프로파일 집단에 따른 실제-이상 자기불일치, 정서조절 양식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 및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애성 성격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실시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4개의 유형은 각각 비자기애형, 웅대형, 취약형, 혼합형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자기애성 성격 잠재프로파일 집단에 따라 실제-이상 자기불일치, 정서조절 양식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자기애성 성격, 실제-이상 자기불일치, 정서조절 양식, 잠재프로파일 분석

\* 본 연구는 금도연(2022)의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자기애 유형에 따른 실제-이상 자기불일치, 정서조절 양식,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유금란,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43

Tel : 02-2164-4271, E-mail : [kyu@catholic.ac.kr](mailto:kyu@catholic.ac.kr)



Copyright ©2024,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나르시시즘(Lasch, 1989)이 우리 사회에 점점 팽배해지고 있다. Lasch(1989)는 현대 사회에 자기에성 성격이 만연되어 있어, 일종의 증후군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의 지원을 통해 실시된 Stinson 등(2008)의 연구에서는 20대 집단에서 자기에성 성격장애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65세 이상 집단보다 약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선경 등(2014)의 연구에서도 지난 15년간 자기에성 성격의 대학생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 사회의 젊은 연령층에서도 자기에성 성격의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신에 대한 사랑(self love)을 뜻하는 자기에(narcissism)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다. Freud(1914)는 자기에를 모든 유기체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근본적인 사랑이라고 하였으며, Kernberg(2008)는 자기에적 기능이 자기 존중감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모든 성격에 필수적이라 언급하였다. 자기에의 발달은 생애 초기에 주 양육자로 대표되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학대나 방치(Kernberg, 2008), 공감의 실패(Kohut, 1977), 부모의 과대평가(Millon, 1981) 등은 건강한 자기에 발달 과정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유아는 자기에 손상의 결과로써 사랑받지 못한 자기의 취약성(vulnerability)에 낙담하거나, 자기의 취약함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자기의 웅대성(grandiosity)을 발달시키게 되는데(황선정, 2014), 웅대성과 취약성이라는 이질적인 속성이 개인 내에 공존하는 것은 자기에성 성격의 가장 큰 특징이다(Horvath & Morf, 2009).

이러한 자기에성 성격의 특성은 하위유형을 분류하고 유형 간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 흐름

을 야기하였다. Cain 등(2008)의 연구에 의하면, 연구자마다 자기에성 성격을 분류하는 기준 및 그에 따른 명칭이 약 5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Akhtar와 Thomson(1982)이 표현형에 따라 외현적 자기에(overt narcissism)와 내현적 자기에(covert narcissism) 두 가지로 구분한 분류 방식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Pincus와 Lukowitsky(2010)는 외적 표현 양상으로 자기에성 성격을 분류하고 명명하는 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이는 보다 내적인 분류 방식이 필요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자기에성 성격의 이질적인 속성이 동시에 개인 내에 존재할 수 있고, 그 수준도 개인마다 상이할 수 있다면, 이질적인 패턴의 하위집단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자기에성 성격과 관련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라는 개념적인 구분에 따라 그 차이를 확인하거나(예: 류경희, 홍혜영, 2014; 이주리, 배예랑, 2021), 연구 목적에 따라 한 가지의 자기에 하위유형만을 선택하여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예: 구태희, 황재원, 2021; 김영찬, 손재환, 2021; 이미영, 유금란, 2022; 정명희, 양난미, 2019; 정문선, 이무식, 2018; 조진행, 송원영, 2020). 그러나 이러한 변인 중심 접근(variable-centered approach)은 연구 대상의 실제 특징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Bergman & Magnusson, 1997), 자기에성 성격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을 탐색하려는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에성 성격의 하위유형을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사람 중심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인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활용하고자 한다. 기존

자기애성 성격의 집단을 구분하고자 시도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연구자가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임의로 집단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었다(예: 김소연, 고영진, 2016; 백승혜, 현명호, 2008; 이현라, 2022). 그러나 임의적인 집단 구분은 그 기준이 연구자의 주관에 달려있어 과학적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들고, 개인 내에서 하위요인들이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비교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연속형 측정변수에 잠재계층 분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한 분석 방법으로(홍세희, 2020),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존재하는 다양한 이질성 속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여 잠재적 하위집단을 탐색하고 규명하는 방법이다(Nylund-Gibson & Choi, 2018). 즉, 연구 참여자의 응답 패턴을 반영하여 최적의 하위집단을 분류한다는 점에서, 군집분석 또는 임의적 분류 방식과 비교하여 방법론적 강점이 있다(김혜인, 신효정,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적용함으로써 자기애성 성격의 이질적인 속성이 실제로 공존하는 현상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자기애성 성격 연구에서 하위유형 구분과 관련된 논쟁 밖에도 주목해야 할 점은 비밀관적인 척도 사용의 문제이다(Ackerman et al., 2012; Samuel & Widiger, 2008). 사회 및 성격심리학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척도는 Raskin과 Hall(1979)이 개발한 자기애적 성격검사(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이하 NPI)이다. NPI는 전체 자기애성 성격 연구의 약 77%에서 사용되었을 정도로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다(Cain et al., 2008). 그런데 NPI의 4개의 하위요인 중 자기몰두/자기선망, 지도성/

권위성, 우월성/당당함이 건강한 심리적 특성과 높은 정적 상관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Rosenthal & Hooley, 2010), 오히려 건강한 자기애를 측정하는 데 적합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다(Cain et al., 2008; Pincus et al., 2009). 또한 NPI는 외현적 자기애의 특성을 중심으로 기술된 DSM-III(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이하 APA, 1980)의 진단 기준을 근거로 개발되었기 때문에(Raskin & Hall, 1979),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Ackerman et al., 2012). 이에, Hendin과 Cheek(1997)이 과민성 자기애 척도(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를, 국내에서는 강선희(2002)가 내현적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이하 CNS)를 개발하였는데, 이들 척도는 내현적 자기애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황선정, 조성호, 2015).

자기애성 성격의 핵심이 하나의 성격에 모순적인 특성이 공존하는 것이라면(Morf & Rhodewalt, 2001), 자기애성 성격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위해서는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 모두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을 비교하고자 시도했던 선행연구들(예: 이성미, 이영호, 2021; 이준득 등, 2007; 이현라, 2022; 조은영, 곽은희, 2012; 최정인 등, 2012)에서 사용한 척도를 참고하여, DSM-III-R(APA, 1987)의 진단 기준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적응상 어려움을 유발하는 자기애성 성격을 측정한다고 알려진 바 있는(한수정, 1999), 황순택(1995)의 자기애적 성격장애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이하 NPDS)를 사용하여 외현적 자기애를 측정하고, 동시에 국내 내현적 자기애 관련 연구

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강선희(2002)의 CNS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하고자 한다.

자기애성 성격 내에 질적으로 서로 다른 집단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집단에 따라서 심리적 특성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실제 임상 장면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접근 방향을 달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집단 간 심리적 특성 차이를 탐색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된다. 자기애 유형들이 서로 공통적인 역동을 지녔으면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다른 이유는 손상된 자기를 복구하기 위한 방어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Cooper, 1998). Kohut(1971)의 자기심리학에서 ‘수평분열(horizontal splitting)’은 억압에 대응하는 것으로, 주로 외현적 자기애와 연관된다. 이는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기대상 욕구나 관심을 무의식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억압된 욕구의 압력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어 자기애에 대한 원초적인 과대망상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이들은 낮은 자존감, 수치심과 관련되는 경험을 만성적으로 부인하면서 자신의 웅대성을 명시적으로 표현한다. 반면 ‘수직분열(vertical splitting)’은 취약성과 무력감을 경험하지만, 부인 및 부정의 방어기제를 통해 전능감으로 바꾸려 시도하는 것이다(Kohut, 1971). 수직분열은 주로 내현적 자기애와 연관되는데, 이는 개인에게 낮은 자존감이나 공허함을 경험하게 만든다(Cain et al., 2008).

자기애성 성격과 관련된 이론은 개인에게 내재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양상에 따라, 의식 수준에서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의 차이, 즉 자기개념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자기개념(self-concept)은 19세기 말 James

(1950)를 시작으로, 여러 학자에 의해 연구되어 온 주제이다. James(1950)는 최초로 자기개념에는 여러 측면이 존재함을 주장하였고, 실제적 자기(real self)와 이상적 자기(ideal self)의 두 차원을 제시하였다. Rogers와 Dymond(1954)도 자기개념을 현실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였고, 이 두 자기개념의 격차가 심리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론을 주장하였다. Higgins(1987) 역시, 현재 지각하는 자기의 모습과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실제-이상 자기불일치(actual-ideal self-discrepancy)가 낙담(dejection)에 기반한 정서인 우울, 슬픔, 좌절감 등과 관련이 있다 하였다.

자존감(self-esteem)은 자신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있는데(Campbell, 1990), 선행연구들에서 외현적 자기애는 자존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John & Robins, 1994; Raskin et al., 1991; Rhodewalt & Morf, 1998). 그러나 외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과대 자기만을 인식하고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왜곡하는 특성이 있어(Pincus et al., 2009), 이들이 지각하는 실제적 자기는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다. Raskin과 Terry(1988)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실제 자기개념과 이상적 자기상 간의 합치도가 높을 수는 있지만, 이상적 자기애 병리적인 속성을 띠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선행연구들에서 내현적 자기애는 일관되게 자존감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Miller et al., 2011; Tritt et al., 2010).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부인하고자 시도하지만 이를 의식할 수 있으므로 자기불일치를 더욱 빈번하게 경험하며, 공허감이나 수치심과 같은 정서를 많이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다(Kohut, 1971). 이처럼 자기애성 성격 유형은 방어 형태의 차이가 핵심이라 볼 수 있고 (Cooper, 1998), 이에 따라 개인이 의식하는 자기개념의 간극, 다시 말하면 자기불일치의 경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직접 확인하고 비교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므로, 이를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한편, 사람들은 개인마다 일상생활의 문제 상황 또는 갈등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발현되는 정서 및 행동적 반응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결정하는 요소가 자기조절(self-regulation)이라 할 수 있다(송혜영, 2007). 그리고 자기애성 성격의 하위유형에 따라, 자기조절 전략이 다르다는 견해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Ng et al., 2014; Ozimek et al., 2018). 역동적 자기조절 과정모형(dynamic self-regulatory processing model)에 의거하면, 자기애적 자기는 이상적인 자기상에 부합하는 피드백은 강화하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최소화하는 ‘대인관계적 자기조절전략’과 자신의 행동이 유발하는 결과나 외부 피드백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개인내적인 과정’의 역동적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Morf & Rhodewalt, 2001). 자기조절은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구성개념이지만 정서조절이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는데(Baumeister, 1997), 자기애성 성격의 자기조절 전략 역시 정서조절 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은 보편적으로 부정 정서를 감소시키고 (Gross et al., 2006) 긍정 정서는 많이 그리고 오래도록 유지하려 노력하는 경향이 있으며 (Langston, 1994), 이 방식은 개인마다 상이하다 (윤석빈, 1999). 윤석빈(1999)은 이러한 개인의 정서조절 양식을 능동적 양식, 지지추구적 양

식, 회피분산적 양식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능동적 양식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의 건강한 삶이나 대인관계와 정적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임전옥, 장성숙, 2003). 지지추구적 양식은 타인으로부터 정서적 또는 도구적 지지를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슬픔과 분노를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다(이시은, 2009). 회피분산적 양식은 문제 상황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하며 주의를 분산하려는 방식으로, 신경증과 정적 관련이 있다(이귀선, 정남운, 2003).

5요인 성격이론(Costa & McCrae, 1992)의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요인이 적극적 대처방식 및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대처방식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김옥희, 안현의, 2008)를 고려할 때, 비교적 건강한 자기애를 지닌 사람들은 정서조절 양식 중 능동적 양식 및 지지추구적 양식과 정적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외현적 자기애 성향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 자존감을 조절하고, 자신의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Emmons & Colby, 1995), 능동적 양식보다는 지지추구적 양식 및 회피분산적 양식과 관련이 높을 것이다. 한편, 내현적 자기애는 문제 중심적인 이성적 대처와는 부적 상관이 있고(김우정, 2011),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이나 적대감으로 인해 사회적 지지를 받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다(이진숙, 현명호, 2012; 한상은, 2012). 또한 내현적 자기애가 경험 회피와 연관성 높다는 것은 여러 차례 검증된 바 있다(박세란, 2004; 신혜인, 2009; Dickinson & Pincus, 2003).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능동적 양식 및 지지

추구적 양식 사용과는 거리가 멀고, 회피분산적 양식 사용이 증가할 것이다. 기존 국내 연구에서는 자기애의 하위유형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을 비교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내현적 자기애와 인지적 정서조절과 같이(예: 강문선, 이영순, 2019; 김미선, 주은지, 2020) 연구자가 관심 있는 특정 변인만을 검증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자기애성 성격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종합하면, 시대적으로 자기애성 성격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지만, 자기애적 성격의 역할적이고 모순적인 구조로 인해 연구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데이터 특성을 기반으로 자기애성 성격 집단을 추출함으로써 자기애성 성격이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에 더해, 자기애성 성격 유형이 서로 다른 현상적 모습을 나타내는 핵심적 이유가 방어형태의 차이이며(Cooper, 1998), 그에 따라 의식적 자기개념 또는 자기조절 전략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와 연관되는 개념인 실제-이상 자기불일치, 정서조절 양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기애성 성격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과 동시에, 집단별 고유 특징에 기반하여 실증적 개입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외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자기중심성, 웅대성 및 자기 칭찬과 주목의 요구, 과장된 자기지각)과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목표 불안정, 과민취약성, 소심 및 자신감 부족)에 따라 몇 개의 잠재프로파일 집단으로

분류되는가?

연구문제 2. 잠재프로파일 집단에 따라 실제-이상 자기불일치, 정서조절 양식(능동적 양식, 지지추구적 양식, 회피분산적 양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방 법

###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사를 받은 후 실시되었으며, 연구 윤리를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20~3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약 4개월에 걸쳐 온라인 설문을 통해 1,052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 429부는 연구자가 직접 수집하였으며, 623부는 외부 설문업체 통해 수집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설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는 소정의 커피 쿠폰이 보상으로 제공되었으며, 외부 설문업체를 통해 설문 응답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는 추후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적립금이 제공되었다.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정보, 자기애적 성격장애 척도, 내현적 자기애 척도, 자기불일치 척도, 정서조절 양식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었다. 설문 종료 후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무응답이 있는 자료를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013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여성은 640명(63.2%), 남성은 373명(36.8%)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28.9세로, 20대는 614명(60.6%), 30대는 399명(39.4%)이었다.

## 측정도구

### 자기에적 성격장애 척도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NPDS)

외현적 자기애를 측정하기 위하여, 황순택(1995)이 DSM-III-R(APA, 1987)의 진단 준거를 보완하여 개발한 성격장애를 측정하는 자기 보고형 검사 중 자기에성 성격장애에 관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8문항으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자기에적 성향이 높고 적응상 어려움이 있는 부적응적 자기애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한수정(1999)이 수정한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황순택(1995)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alpha$ 는 .68이었으며, 한수정(1999)의 연구에서는 .88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2로 나타났다.

### 내현적 자기애 척도 (Covert Narcissism Scale: CNS)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하기 위하여, Akhtar와 Thomson(1982)이 제시했던 자기에성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기반으로 강선희(2002)가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45문항으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가 높음을 나타낸다. 강선희(2002)는 요인분석을 통해 5개 하위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공통요인(2요인)과 내현적 자기애의 고유요인(3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척도 사용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내현적 자기애의 고유요인을 측정하는 27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강선희(2002)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alpha$ 는

.91이었으며, 박세란(2004)의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 고유요인의 Cronbach's  $\alpha$ 는 .90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4로 나타났다.

### 자기불일치 척도

본 연구에서는 Higgins(1987)의 자기질문지를 보완하여 서수균(1996)이 폐쇄형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서수균(1996)의 자기질문지는 자기의 영역(실제적·이상적·의무적 자기)과 자기의 관점(자신·타인)으로 조합된 6가지 유형이 있다. 각각의 자기질문지는 지시문에만 차이가 있고, 동일한 형용사 반의어 22쌍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9점 리커트 형식으로, 0점(어느 쪽도 아니다)을 중심으로 양방향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1=약간 그렇다~4=확실히 그렇다).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관점에서 실제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영역을 측정하는 두 가지 자기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개인의 자기불일치 정도는 각각의 자기질문지에서 대응하는 문항의 점수 차의 절댓값을 합산한 것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자기불일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서수균(199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실제적 자기 .85, 이상적 자기 .90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92, .96으로 나타났다.

### 정서조절 양식 체크리스트

본 연구에서는 윤석빈(1999)의 정서조절 양식 척도를 임전옥과 장성숙(2003)이 보완하고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능동적 양식, 지지추구적 양식, 회피분산적 양식의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총 25문항으로, 1점(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부터 5점(자주 사용한다) 형식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임전옥과 장성숙(200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능동적 양식은 .82, 지지추구적 양식은 .76, 회피분산적 양식은 .88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85, .87, .78로 나타났다.

### 자료분석

연구 자료는 SPSS statistics 21.0, M-Plus 8.0을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먼저,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기술통계분석 및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자료의 전반적인 경향성과 변인 간 관계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자기애성 성격의 하위요인을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적합도는 AIC, BIC, SABIC 및 Entropy 지수, BLRT의  $p$  값을 참조하였으며, AIC, BIC, SABIC 값은 낮을수록, entropy의 값은 1과 가까울수록, BLRT의  $p$  값이 유의할 때 모형적합도가 만족할 만한 것으로 판단하였다(Muthén & Muthén, 2000). 또한 이러한 통계치와 함께, 변인의 평균 간 차이 검증에 근거한 해석 가능성 및 기존 이론과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모형을 결정하였다(Marsh et al., 2009). 마지막으로, 잠재프로파일 집단별로 분석에 활용되었던 관찰변수의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지 확인하고, 연구자의 관심 변인이었던 실제-이상 자기불일치, 정서조절 양식(능동적 양식, 지지추구적 양식, 회피분산적 양식)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외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 실제-이상 자기불일치, 정서조절 양식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였다. Hong 등(2003)에 의하면, 측정 변인의 왜도는 절댓값 2 미만, 첨도는 절댓값 4 미만이어야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한다. 분석 결과, 모든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측정변인들의 상관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 잠재프로파일 분석

#### 잠재프로파일 최적 군집 수 결정

자기애성 성격 하위요인에 따른 집단을 분류하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내현적 자기애 척도(CNS)의 측정값을 자기애적 성격장애 척도(NPDS)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위해 7점 척도로 재코딩하여 사용했고, 잠재집단의 개수를 2개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늘려가며 모형을 확인하였다. 잠재집단의 개수가 2개일 때는 자기애성 성격적 특성이 전체적으로 낮은 집단(비자기애형)과 높은 집단(혼합형)이 나타났다. 잠재집단이 3개일 때는 외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수준은 낮고,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수준이 높은 집단(취약형)이 새롭게 나타났다. 잠재집단이 4개일 때는 외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수준은 높고,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수준이 낮은 집단(웅대형)이 추가로 포함되었다. 잠재집단의 개수를 증가시키며 유형별 자기애성 성격 하위요인의 패턴을 확인한 결과를 그림 1로

표 1. 측정 변인의 정규성 검토 및 변인들 간의 상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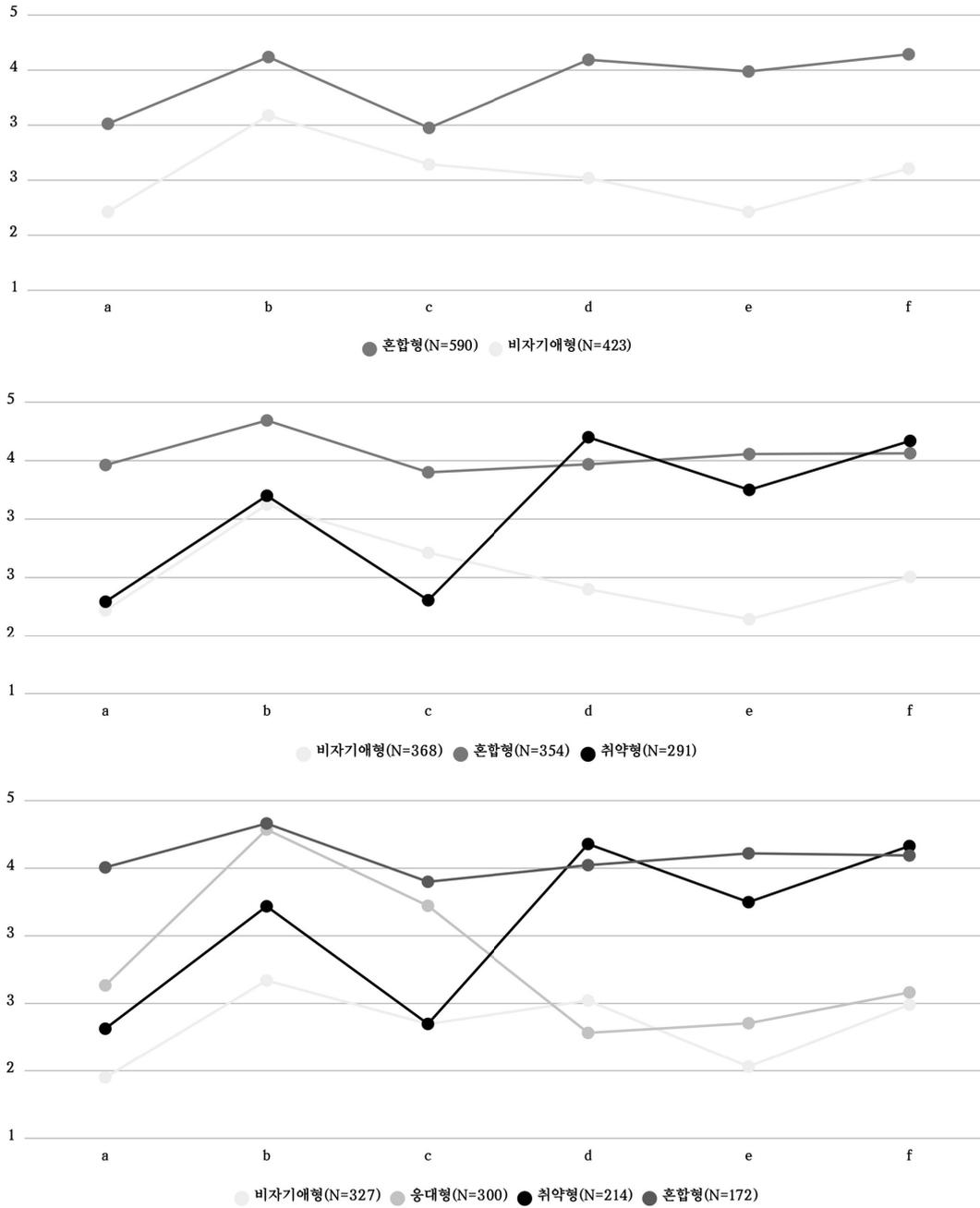
	1	1-1	1-2	1-3	2	2-1	2-2	2-3	3	4	5	6
<b>1 외현적자기애</b>	1											
1-1 자기중심성	.925 <sup>***</sup>	1										
1-2 응대성	.848 <sup>***</sup>	.604 <sup>***</sup>	1									
1-3 과장된 자기지지각	.683 <sup>***</sup>	.594 <sup>***</sup>	.459 <sup>***</sup>	1								
<b>2 내현적자기애</b>	.464 <sup>***</sup>	.505 <sup>***</sup>	.347 <sup>***</sup>	.149 <sup>***</sup>	1							
2-1 목표 불안정	.166 <sup>***</sup>	.238 <sup>***</sup>	.091 <sup>**</sup>	-.086 <sup>**</sup>	.793 <sup>***</sup>	1						
2-2 과민취약성	.532 <sup>***</sup>	.565 <sup>***</sup>	.407 <sup>***</sup>	.200 <sup>***</sup>	.934 <sup>***</sup>	.658 <sup>***</sup>	1					
2-3 소심/자신감부족	.283 <sup>***</sup>	.312 <sup>***</sup>	.230 <sup>***</sup>	.015	.839 <sup>***</sup>	.624 <sup>***</sup>	.733 <sup>***</sup>	1				
<b>3 실제-이상 자기불일치</b>	.124 <sup>***</sup>	.138 <sup>***</sup>	.138 <sup>***</sup>	-.114 <sup>***</sup>	.445 <sup>***</sup>	.448 <sup>***</sup>	.441 <sup>***</sup>	.410 <sup>***</sup>	1			
<b>4 능동적 양식</b>	-.013	-.108 <sup>**</sup>	.067 <sup>*</sup>	.151 <sup>**</sup>	-.331 <sup>**</sup>	-.461 <sup>**</sup>	-.290 <sup>**</sup>	-.336 <sup>**</sup>	-.226 <sup>**</sup>	1		
<b>5 회피분산적 양식</b>	.164 <sup>***</sup>	.158 <sup>***</sup>	.162 <sup>***</sup>	.012	.352 <sup>***</sup>	.283 <sup>***</sup>	.306 <sup>***</sup>	.343 <sup>***</sup>	.203 <sup>***</sup>	-.038	1	
<b>6 지지추구적양식</b>	.082 <sup>**</sup>	.016	.144 <sup>***</sup>	.073 <sup>*</sup>	-.153 <sup>***</sup>	-.256 <sup>***</sup>	-.122 <sup>***</sup>	-.158 <sup>***</sup>	-.139 <sup>***</sup>	.422 <sup>**</sup>	.067 <sup>*</sup>	1
평균(M)	3.36	2.88	4.04	3.14	2.66	2.76	2.55	2.82	2.00	3.39	3.17	3.30
표준편차(SD)	1	1.16	1.11	1.25	.70	.94	.85	.80	1.11	.71	.66	.82
왜도	.18	.48	-.15	.47	0	.09	.06	-.10	1.02	-.25	-.08	-.37
침도	-2.54	-.51	-.20	.01	-.48	-.56	-.61	-.55	1.82	.23	.05	-.19

주. \* $p < .05$ , \*\* $p < .01$ , \*\*\* $p < .001$

제시하였다.

통계적 지표를 확인한 결과, BLRT의  $p$  값은 유의수준 .001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IC, BIC, SABIC 값은 작고 잠재집단의 수는 많을수록 좋은 모형이라 판단하는데, AIC, BIC, SABIC 값은 모두 잠재집단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작아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한편, Entropy 값은 1에 근접할수록 적합하다고 판단하는데, 잠재집단의 수가 2개였을 때 보다 3개에서부터 감소하다가, 5개부터 다시 1과 근접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적합도 지수만을 고려하면 5개 이상의 잠재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해 보였으나, 잠재집단 내의 모든 집단의 표본이 5% 이상이 되어야만

집단 간 비교가 가능한데(Jung & Wickrama, 2008), 5개 이상의 잠재집단으로 구분하게 되면 5% 이하의 집단을 포함하게 되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잠재집단의 수가 4개인 모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잠재집단이 4개일 때 entropy 값이 상대적으로 작기는 하나, .80 이상이면 적절한 수준이라는 기준(Muthén, 2004)을 충족하였으며, AIC, BIC, SABIC 지수의 경우에는 잠재집단이 2~3개일 때보다 오히려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잠재집단 수를 결정할 때는 기존 이론과의 일관성, 해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Marsh et al., 2009), 4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잠재집단



\*a=자기중심성, b=옹대성 및 자기 칭찬과 주목의 요구, c=과장된 자기지각, d=목표 불안정, e=과민취약성, f=소심 및 자신감 부족

그림 1. 잠재집단 개수에 따른 자기애성 성격의 하위요인 패턴

표 2. 잠재프로파일 집단 수에 따른 적합도 비교

Class	Model fit					Groups
	AIC	BIC	SABIC	Entropy	BLRT P-value	n(%)
1	19787.941	19846.989	19808.876	-	-	-
2	18424.226	18517.719	18457.373	.827	.000	590(58.2), 423(41.8)
3	17918.803	18046.741	17964.163	.807	.000	368(36.3), 354(34.9), 291(28.7)
4	17629.969	17792.352	17687.541	.806	.000	327(32.3), 300(29.6), 214(21.1), 172(17.0)
5	17360.020	17556.847	17429.804	.838	.000	315(31), 272(26.9), 262(25.9), 114(11.3), 50(4.9)
6	17077.451	17308.723	17159.447	.841	.000	296(29.2), 264(26.1) 174(17.2), 131(12.9), 100(9.9), 48(4.7)

이 2~3개월 때보다 정보가 높은 동시에 기존 이론과 높은 관련성을 보이며, 각 집단에 표본 수가 균일하게 분포 되어있는 등 해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잠재프로파일의 특성**

최종 결정된 잠재집단의 이름을 명명하기 위

해 프로파일의 하위요인별 평균을 표 3에 제시하였다. 일원 분산분석 결과, 외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인 자기중심성( $F=872.014, p<.001$ ), 응대성 및 자기 칭찬과 주목의 요구( $F=276.657, p<.001$ ), 과장된 자가지각( $F=227.583, p<.001$ )과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인 목표 불안정( $F=283.752, p<.001$ ), 과민취약성( $F=677.979,$

표 3. 잠재프로파일 유형별 평균 비교

	비자기애형(A) (n=327)		응대형(B) (n=300)		취약형(C) (n=214)		혼합형(D) (n=172)		Welch F	Dunnett T3
	M	SD	M	SD	M	SD	M	SD		
	자기중심성	1.721	.468	2.814	.742	2.301	.565	4.210		
응대성 및 자기 칭찬과 주목의 요구	2.872	.799	4.659	.785	3.750	.932	4.730	.806	276.657***	D,B>C>A
과장된 자가지각	2.357	.836	3.756	1.038	2.358	.838	4.040	1.095	227.583***	D>B>C,A
목표 불안정	2.635	1.090	2.252	.892	4.487	1.164	4.237	1.033	283.752***	C>D>A>B
과민취약성	1.849	.629	2.366	.714	3.799	.836	4.376	.816	677.979***	D>C>B>A
소심 및 자신감 부족	2.586	.801	2.731	.874	4.463	.835	4.351	.842	355.743***	C,D>B,A

주. \*\*\*  $p<.001$

$p < .001$ ), 소심 및 자신감 부족( $F=355.743$ ,  $p < .001$ )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최종적으로, 잠재집단 1은 모든 측정변인에서 다른 잠재집단보다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어 병리적인 자기애적 특징이 적다는 의미에서 ‘비자기애형’이라 명명하였다. 잠재집단 2는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은 전반적으로 낮은 평균값을 나타낸 반면, 외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인 웅대성 및 자기 칭찬과 주목의 요구와 과장된 자기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웅대형’이라 명명하였다. 잠재집단 3은 외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은 전반적으로 낮은 평균값을 나타낸 반면,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에서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 ‘취약형’이라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잠재집단 4는 외현적 자기애 및 내현적 자기애 모두에서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 ‘혼합형’이라 명명하였다.

**잠재프로파일 유형별 실제-이상 자기불일치, 정서조절 양식의 차이**

잠재프로파일 유형별로 실제-이상 자기불일치, 정서조절 양식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와 그림 2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실제

-이상 자기불일치( $F=65.322$ ,  $p < .001$ ), 능동적 양식( $F=45.128$ ,  $p < .001$ ), 지지추구적 양식( $F=29.700$ ,  $p < .001$ ), 회피분산적 양식( $F=7.347$ ,  $p < .001$ )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실제-이상 자기불일치’는 취약형, 혼합형 순으로 가장 높았고, 이와 비교하여 비자기애형과 웅대형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서조절 양식 중 ‘능동적 양식’은 웅대형, 비자기애형 순으로 가장 높았고, 이와 비교하여 혼합형과 취약형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지추구적 양식’은 웅대형, 비자기애형, 혼합형에 비하여 취약형이 낮은 수준이었다. ‘회피분산적 양식’은 취약형과 혼합형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웅대형, 비자기애형 순이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성 성격의 분류 방식과 각 유형은 독립적인가에 대한 논란, 기존 연구가 주로 변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임의적인 집단 구분 방식을 사용한 점 등에 주목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자기애성

표 4. 잠재프로파일 유형별 실제-이상 자기불일치, 정서조절 양식의 차이

	비자기애형(A) (n=327)		웅대형(B) (n=300)		취약형(C) (n=214)		혼합형(D) (n=172)		Welch F	Dunnett T3
	M	SD	M	SD	M	SD	M	SD		
실제-이상 자기불일치	1.501	.827	1.478	.733	2.340	.994	2.309	1.293	65.322***	C>D>A,B
능동적 양식	3.617	.675	3.802	.689	3.170	.735	3.237	.577	45.128***	B>A>D,C
지지추구적 양식	3.411	.806	3.481	.863	3.131	.901	3.297	.705	29.700***	B,A,D>C
회피분산적 양식	2.869	.647	3.005	.649	3.326	.634	3.296	.618	7.347***	C,D>B>A

주.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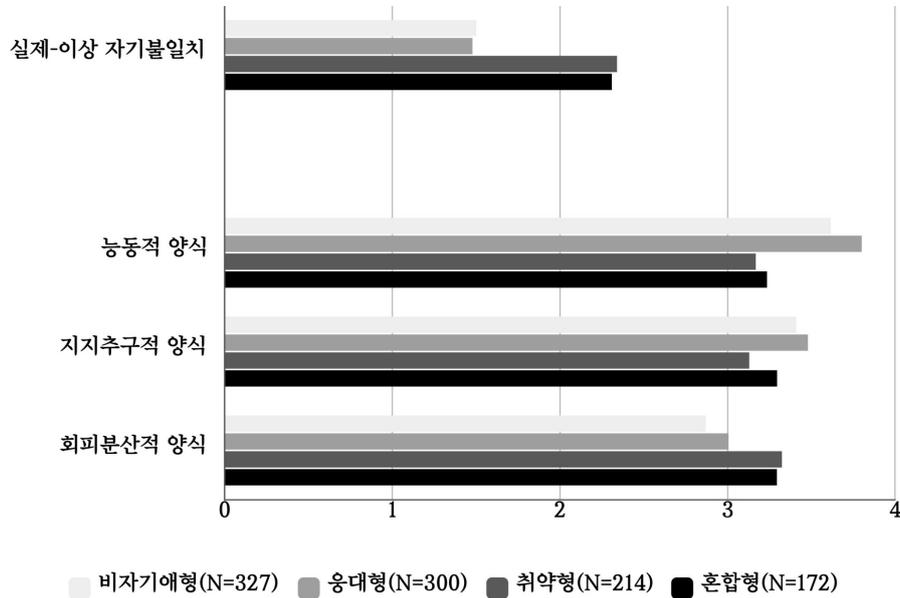


그림 2. 잠재프로파일 유형별 실제-이상 자기불일치, 정서조절 양식의 차이

성격의 하위집단을 탐색하였다. 더불어 자기애성 성격의 하위 유형별로 실제-이상 자기불일치, 정서조절 양식(능동적 양식, 지지추구적 양식, 회피분산적 양식)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애성 성격 하위요인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을 탐색함으로써, 실제 자기애성 성격이 어떤 현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군집을 확인하였다. 네 가지 유형에 따른 자기애성 성격 특성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형인 ‘비자기애형’에 속한 사람들은 327명(32.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비자기애형’은 외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인 자기중심성, 웅대성 및 자기 칭찬과 주목의 요구, 과장된 자기지각,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인 목표 불안정, 과민취약성, 소심 및 자신감 부족 모두 낮은 양상을 나타냈다. 이들은

자기중심성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자기중심성을 측정하는 문항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대해 때로는 너무 좋다가 때로는 극도로 미워지는 등 감정이 극단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모욕감을 느낄 때가 많고, 이 경우 화를 내거나 나도 그들에게 모욕을 준다.’ ‘감정적으로 흥분되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입장 따위는 생각도 나지 않는다.’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비자기애형’의 사람들은 대인관계 상황 속에서 비교적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자신에 대해 과대평가하거나 타인의 피드백에 크게 연연하는 모습 없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자기감을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특징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인 ‘웅대형’에 속한 사람들은 300명(29.6%)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

하였다. ‘웅대형’에 속한 사람들은 비교적 강한 집단이라고 사료되는 ‘비자기애형’과 비교했을 때, 외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인 자기중심성, 웅대성 및 자기 칭찬과 주목의 요구, 과장된 자기지각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인 과민취약성은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목표 불안정은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따라서 이들은 목표달성을 통해 자신의 우월한 능력을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몰두하며, 이것이 좌절되었을 때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 연령대가 20~30대인 점을 고려할 때, ‘웅대형’의 빈도가 전체에서 약 30%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은 젊은 연령층에서 자기애성 성격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이선경 등, 2014; Stinson et al., 2008)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또한 Twenge와 Campbell(2009)은 현대 사회의 물질주의와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자기애성 성격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이 일종의 전염병이라고 비유한 바 있는데,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역시 개인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자본주의 논리가 팽배해짐에 따라 개인의 경쟁적인 삶의 태도가 심화됨으로써 자기애적 행동양식이 증가하고 있음(최혜정, 장문선, 2010)을 시사한다.

세 번째 유형인 ‘취약형’에 속한 사람들은 214명(21.1%)으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들은 외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 특히 과장된 자기지각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인 목표 불안정과 소심 및 자신감 부족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인 NPDS가 외현적 자기애의 병리적인 속성을 측정하고 있기

에 과장된 자기지각이 낮은 것 자체가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높게 상승한 소심 및 자신감 부족을 함께 고려해 보았을 때, 이들은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집단으로 여겨진다. 이에, ‘취약형’의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겠으며, 이로 인해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여 나아가는 것이 어렵고, 사회적인 상황에서는 위축된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네 번째 유형인 ‘혼합형’에 속한 사람들은 172명(17.0%)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혼합형’은 외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인 자기중심성, 웅대성 및 자기 칭찬과 주목의 요구, 과장된 자기지각, 그리고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인 과민취약성, 소심 및 자신감 부족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점수를 나타냈다. 따라서 이들은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가장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특징이 있고, 자기에 대해 과장되게 지각하며 이를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할 것이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취약형’보다도 자기의 취약성을 느끼면서, 타인의 피드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검사로 이루어졌으므로, ‘혼합형’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의 웅대성과 취약성 모두를 의식 수준에서 인식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스스로에 대한 지각이 안정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둘째, 자기애성 성격 잠재프로파일 집단 분류에 따라 실제-이상 자기불일치, 정서조절 양식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먼저, ‘비자기애형’과 ‘웅대형’이 실제-이상 자기불일치 수준이 가장 낮았다. 선행연구에서 실제-이상

자기불일치는 높은 수준의 부적 정서와 낮은 수준의 긍정 정서와 관련이 있고, 다수의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Mason et al., 2019). 따라서 ‘비자기애형’이 실제-이상 자기불일치가 낮은 것은 이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한 집단이라는 점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웅대형’의 경우 외현적 자기애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집단이며, 외현적 자기애는 DSM-5(APA, 2013)에서 기술된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정의와 대체로 일치한다.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 수준의 자존감이 높아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가진 것처럼 비추어지는 경향이 있지만(이성미, 이영호, 2021), 외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과대 자기만을 인식하고 그것과 불일치하는 정보는 왜곡하는 특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Pincus et al., 2009), 실제-이상 자기불일치에 있어 ‘비자기애형’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Raskin과 Terry(1988) 역시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비록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 표상 간의 일치도가 높을 수는 있지만, 이상적 자기에 병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이들은 ‘비자기애형’과 자기불일치의 평균값은 비슷한 수준이더라도, 비교적 실제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 모두를 과장되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한편, ‘취약형’은 실제-이상 자기불일치 수준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혼합형’이 높았다. 두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높은 수준의 내현적 자기애적 특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 집단이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의 차이가 크다는 선행 연구(이명신, 2010; 장건희, 2007)와 맥락을 같

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취약형’이 ‘혼합형’에 비해 목표 불안정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소심 및 자신감 부족 역시 높은 점수를 나타낸 점, ‘혼합형’이 ‘취약형’에 비해 자기중심성, 웅대성 및 자기 칭찬과 주목의 요구, 과장된 자기지각 모두에서 점수가 높았던 것을 함께 고려해 보면, 두 집단 간 실제-이상 자기 불일치 경험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즉, ‘취약형’의 실제-이상 자기불일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이 보다 핵심이 되는 반면, ‘혼합형’의 실제-이상 자기불일치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웅대한 자기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서조절 양식 중 능동적 양식의 사용은 ‘웅대형’, ‘비자기애형’순으로 높았다. 지지추구적 양식의 사용은 ‘취약형’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회피분산적 양식의 사용은 ‘취약형’, ‘혼합형’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능동적 양식은 개인의 외향성, 자존감, 정서조절에 대한 기대, 낙관성 등과 정적 관련이 있어 건강한 양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윤석빈, 1999), ‘비자기애형’에서 능동적 양식 사용 수준이 높다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들보다 오히려 ‘웅대형’에서 능동적 양식 사용 수준이 더 높은 것은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의 자존감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으며, 인정이나 긍정적 평가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신의 성취, 매력, 재능 등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성미, 이영호, 2021)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해석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강연우(2004)는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경우 자기과시의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앞

서 ‘웅대형’이 실제-이상 자기불일치가 낮은 수준이었던 결과와 함께, 외현적 자기에가 수평분열과 연관이 된다는 점(Kohut, 1971)을 경험적으로 확인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웅대형’은 과대한 자기에 대한 집중과 주변에 대한 민감성이 기저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자기에 대한 위협을 경험할 때 분노 정서를 느끼고 이를 공격성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는데(Baumeister, 1997), 정서의 종류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 차이를 확인한 연구(민경환 등, 2000)에서 능동적 조절양식이 분노 조절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어, ‘웅대형’의 능동적 양식은 이들의 높은 분노 수준과 관련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취약형’에서 지지추구적 양식 사용 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은 이들에게 내재한 높은 수준의 내현적 자기에적 특징 - 목표 불안정, 과민취약성, 소심 및 자신감 부족 - 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정서적 어려움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자기의 취약성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정서적, 도구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와 비교하여 ‘혼합형’은 내현적 자기에의 특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추구적 양식의 사용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기의 취약성을 보상하기 위한 작용에서 발현된 외현적 자기에적 특징 - 자기중심성, 웅대성 및 자기 칭찬과 주목의 요구, 과장된 자기지각 - 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건강한 지지추구와는 거리가 있을 것이다. 한편, ‘취약형’과 ‘혼합형’에서 회피분산적 양식 사용 수준이 높은 것은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내재된 내현적 자기에적 특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현적 자기에가 회피적 태도와 관련이 높다

는 것은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된 바 있다(신혜인, 2009; Dickinson & Pincus, 2003).

본 연구의 의의 및 상담의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자기에성 성격은 하위유형 구분에 관한 논쟁이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며(황선정, 조성호, 2015), 이제까지 국내에서 자기에성 성격과 관련된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지만, 하위유형 중 일부를 선택하여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발견하는 변인 중심 접근으로 이루어지거나, 임의적인 집단 구분 방식으로 이루어져 연구 대상의 특징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에서 자기에성 성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선경 등, 2014; Lasch, 1989; Stinson et al., 2008)에 따라, 성인 초기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표본을 수집하여 자기에성 성격이 개인 내에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존재하는지 확인함으로써, 비자기애형, 웅대형, 취약형, 혼합형 4가지 유형을 발견하였다. 이는 기존 이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결과이지만, 이론적 스펙트럼 안에서 존재하는 현상을 실제로 종합하여 재분석, 재분류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최근 자기에성 성격 관련 연구에서는 자기에의 웅대한 측면과 취약한 측면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관점이 힘을 얻고 있음에도(Pincus & Lukowitsky, 2010),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수행된 연구들은 제한적인 상황에서(김희주, 2018) 통합적 이해를 시도하였다. 이에 더해, 자기에성 성격과 관련성이 높으면서도 하위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변인인 실제-이상 자기불일치, 정서조절 양식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는 실제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자기에

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역동을 고려하여 상담의 개입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웅대형’의 사람들은 목표 달성을 통해 자기 가치감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고, 자신에 대한 높은 이상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몰두하거나 과시하려는 특징이 있을 것이다. Burns(1980)의 이론을 바탕으로 발전된 완벽주의(perfectionism)의 관점에서, 스스로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기준은 좌절로 연결되기 쉬우며(Burns, 1980), 이는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나 지연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Hamachek, 1978; Pacht, 1984). 따라서 이들에게는 스스로에 대한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좌절 상황이 있는지 탐색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웅대형’은 자신의 성과가 자기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기대한 만큼 인정을 얻지 못했을 때 높은 좌절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는데, 자기가치감을 타인에게 수반하는 것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하므로(Park & Crocker, 2008), 이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편, 이들은 ‘비자기애형’과 유사하게 실제-이상 자기불일치 수준은 낮고, 정서조절 양식에 있어서는 능동적 양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웅대형’에 내재되어 있는 외현적 자기애적 특성과 연관되는 방어적 태도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최혜정과 장문선(2010)의 연구에서 자기에 집단의 MMPI-2 프로파일을 분석한 결과, 외현적 자기에 집단에서 K, S, Ma 척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웅

대형’은 상담 장면에서도 자신을 좋게 보이려 포장하려는 경향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방어를 전략적으로 다루는 것이 상담 개입에 있어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취약형’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개념이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므로, 단계적인 성취 경험을 토대로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실제-이상 자기불일치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Higgins(1987)에 의하면 실제-이상 자기불일치는 슬픔, 우울, 좌절과 같은 낙담에 기반한 정서와 관련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자기불일치 수준을 낮추기 위한 개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의 자기불일치는 자신을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과 관련성이 높다고 여겨지므로, 실제적 자기를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자기불일치가 클수록 부정적 사건과 관련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곱씹고, 자신의 탓이나 실수였다고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자기 경험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높은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한다솜, 김동일, 2022), 내현적 자기애가 사후 반추사고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불안을 유발한다는 결과(최정인, 2024), 내현적 자기애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 비난의 순차적인 매개를 통해 사회불안을 유발한다는 결과(최수진, 2019) 등을 종합해보면, ‘취약형’을 대상으로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에 대한 개입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혼합형’에 속한 사람들은 의식 수준에서 자기의 웅대성과 취약성을 동시에

인식함으로써 자기지각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므로,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안정된 자기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일관되고 확고한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은 이들로 하여금 정서조절을 가능하게 하고,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Yeomans et al., 2015). 또한 ‘혼합형’ 역시 실제-이상 자기불일치가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자기불일치는 ‘취약형’과 비교했을 때 웅대한 자기에서 비롯된 높은 이상적 자기와 관련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초점을 두고 개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취약형’과 ‘혼합형’ 모두 정서조절 양식 중에서 회피분산적 양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회피분산적 양식은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고(이귀선, 정남운, 2003), 주관적 안녕감과 연관된 지표들과 부적 관련이 있으므로(윤석빈, 1999), ‘취약형’과 ‘혼합형’을 대상으로는 공통적으로 보다 능동적이고 건강한 지지추구를 통한 정서조절 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만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했는데, 자기보고식 설문지는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해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생리적 측정 또는 심층 면담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구 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비자기애형’과 ‘웅대형’이 집단을 구분 짓는 하위요인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에도 불

구하고, 표면적인 실제-이상 자기불일치와 정서조절 양식 수준이 구분되지 않았다. 이는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이 자신의 취약함을 억압하거나 부인하는 특성이 높은 것으로부터 발생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들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이나, 내적 작용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인지 정보처리 과정, 또는 행동기저의 동기 등에 대해 탐색함으로써 두 유형을 구분하고자 시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성인 초기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병리적인 자기애성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자기애성 성격이 존재하는 양상이나 심리적 특징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순수하게 자기애성 성격이 실재하는 현상을 연구하고자, 집단 분류에 있어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의 하위요인들만을 투입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때문에 자기애성 성격과 관련된 기존 이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애성 성격 집단을 보다 의미있게 구분할 수 있는 변인을 발견하여 함께 투입하여 집단을 분류하는 것이 의의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자기애성 성격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가장 손상이 큰 영역이 대인관계라고 알려져 있는 바(권석만, 한수정, 2000), 사회적 기술이나 대인관계 문제와 같이 실제적인 대인관계 기능을 가늠할 수 있는 변인을 함께 투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문선, 이영순 (2019).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 불안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 비난의 매개효과. *교육치료연구*, 11(1), 51-72.
- 강선희 (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연우 (2004). 자기애와 방어유형 및 대인관계 특성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태희, 황재원 (2021). 내현적자기애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평가염려완벽주의의 조절효과: 특목고와 일반고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2(6), 191-216.
- 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애성 성격장애. *학지사*.
- 김미선, 주은지 (2020).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1(1), 1021-1034.
- 김소연, 고영건 (2016).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가 직장 내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동서정신과학*, 19(1), 19-34.
- 김영찬, 손재환 (2021). 청소년의 내현적자기애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복지상담교육연구*, 10(1), 235-256.
- 김옥희, 안현의 (2008). NEO 아동성격검사에 따른 초등학생의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 *스트레스研究*, 16(2), 69-77.
- 김우정 (2011). 기혼자들의 자기애성향, 공감, 자존감 및 갈등대처방식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인, 신효정 (2021). 청소년의 자기연민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학업소진과 완벽주의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3), 1229-1254.
- 김희주 (2018). 자기애가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경희, 홍혜영 (2014). 중학생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와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 공격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8), 157-183.
- 민경환, 김지현, 윤석빈, 장승민 (2000). 부정적 정서 조절 방략에 관한 연구: 정서 종류와 개인 변인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2), 1-16.
- 박세란 (2004)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승혜, 현명호 (2008).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적대감, 분노경험수준 및 분노 표현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4), 1001-1017.
- 서수균 (1996). 자기집중적 주의, 실제 자기개념 및 자기안내자 선호성을 고려한 자기불일치와 우울 및 불안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혜영 (2007). 유아의 정서적·행동적 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혜인 (2009).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정서 경험특성과 정서조절방략이 우울에 미치는

- 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석빈 (1999). 경험하는 정서의 종류와 선행 사건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의 차이.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귀선, 정남운 (2003).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과 효과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79-793.
- 이명신 (2010). 자기불일치, 완벽주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영, 유금란 (2022). 내현적자기애와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과 자기위로능력의 이중매개효과. 재활심리연구, 29(1), 61-82.
- 이선경, 허용희, 박선웅 (2014). 한국 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 증가: 시교차적 메타분석 (1999-2014).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3), 609-628.
- 이성미, 이영호 (2021).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와 결혼 만족도의 관계에서 배우자 평가의 상호매개효과: APIMeM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7(1), 55-81.
- 이시은 (2009). 성인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897-914.
- 이주리, 배예량 (2021). 초기 청소년의 외현적 및 내현적 자기애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0), 507-521.
- 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자기개념 명료성과 부정적 정서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2), 463-477.
- 이진숙, 현명호 (2012). 내현적 자기애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소극적 대처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4), 161-181.
- 이현라 (2022).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집단과 낮은 자기애 집단에서 인지적공감이 특성 분노와 분노표현 간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 641-666.
- 임전옥, 장성숙 (2003).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조절양식과 심리적 안녕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259-275.
- 장건희 (2007). 자기애와 자기불일치 및 사회불안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명희, 양난미 (2019). 성격 평정에 대한 자기보고와 타인지각의 차이: 외현적 자기애와 자존감을 중심으로. 심리유형과 인간발달, 20(2), 53-71.
- 정문선, 이무식 (2018). 중학생에서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대인관계 지향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중독과 복지, 2(1), 7-29.
- 조은영, 곽은희 (2012). 실패 피드백 이후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분노와 분노표현 양식. 재활심리연구, 19(3), 583-599.
- 조진행, 송원영 (2020). 청소년의 내현적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 SNS 이용동기의 매개효과 및 성별의 매개된 조절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8(1), 493-514.
- 최수진 (2019).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적 상호

- 작용 불안에 이르는 경로 탐색.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인 (2024). 초기 성인기에 지각된 아동기 정서적 트라우마 경험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인, 이훈진, 이준득 (2012). 평가적 피드백과 생활사건에 따른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성향자의 자존감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2), 631-639.
- 최혜정, 장문선 (2010).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 성향집단의 MMPI-2 프로파일 유형과 자아방어기제 특징. *상담학연구*, 11(2), 539-554.
- 한다솜, 김동일 (2022). 자기불일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몰입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3(4), 91-109.
- 한상은 (2012). 고등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사회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20). 잠재계층, 잠재전이, 성장혼합 모형. 박영사.
- 황선정 (2014). 자기애성 성격의 인지구성: 구성주의 레퍼토리 그리드의 적용.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선정, 조성호 (2015). 병리적 자기애의 선별 기준에 관한 연구: 병리적 자기애 질문지의 절단점 확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2), 275-303.
- 황순택 (1995). 전형성 평정에 의한 성격장애 진단준거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ckerman, R. A., Donnellan, B., & Robins, R. (2012).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4, 141-155.
- Akhtar, S., & Thomson, J. A. (1982).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12-2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rd ed.). Washington, DC: Author.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rd ed-revised). Washington, DC: Author.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uthor.
- Baumeister, R. F. (1997). Esteem threat, self-regulatory breakdown, and emotional distress as factors in self-defeating behavior.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2), 145-174.
- Bergman, L. R., & Magnusson, D. (1997). A person-oriented approach in research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2), 291-319.
- Burns, D. D. (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14(6), 34-52.
- Cain, N. M., Pincus, A. L., & Ansell, E. B. (2008). Narcissism at the crossroads; Phenotypic description of pathological narcissism across clinical theory, social/personality psychology, and psychiatric diagno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 638-656.
- Campbell, J. D. (1990). Self-esteem and clarity of the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 Psychology*, 59(3), 538-549.
- Cooper, A. M. (1998). Further developments in the clinical diagnosi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E. F. Ronningstam (Ed.), *Disorders of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pp. 53-74).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Costa Jr, P. T., & McCrae, R. R. (1992). Four ways five factors are basic.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6), 653-665.
- Dickinson, K. A., & Pincus, A. L. (2003). Interpersonal analysis of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7(3), 188-207.
- Emmons, R. A., & Colby, P. M. (1995). Emotional conflict and well-being: Relation to perceived availability, daily utilization, and observer repor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5), 947-959.
- Freud, S. (1914).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London: Hogarth Press.
- Gross, J. J., Richards, J. M., & John, O. P. (2006). Emotion regulation in everyday life. In D. K. Snyder, J. Simpson, & J. N. Hughes (Eds.), *Emotion regulation in couples and families: Pathways to dysfunction and health* (pp. 13-35).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machek, D. E. (1978). Psychodynamics of normal and neurotic perfectionism. *Psychology: A Journal of Human Behavior*, 15(1), 27-33.
- Hen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e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588-599.
-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3), 319-340.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 Horvath, S., & Morf, C. C. (2009). Narcissistic defensiveness: Hypervigilance and avoidance of worthlessnes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6), 1252-1258.
- James, W. (1950). *The principle of psychology*. New York: Dover. (원본 출판 1890).
- John, O. P., & Robins, R. W. (1994). Accuracy and bias in self-perception: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enhancement and the role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1), 206-219.
- Jung, T., & Wickrama, K. A.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 Kernberg, O, F. (2008). *경계선 장애와 병리적 나르시시즘* (윤순임 역). 학지사. (원본 출판 1975).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A systematic approach to the psychoanalytic treatment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Langston, C. A. (1994). Capitalizing on and coping with daily-life events: Expressive responses to positive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1), 206-219.

- Psychology*, 67(6), 1112-1125.
- Lasch, C. (1989). 나르시시즘의 문화 (최경도 역). 문학과 지성사. (원본 출판 1979).
- Marsh, H. W., Ludtke, O., Trautwein, U., & Morin, A. J. (2009). Classical latent profile analysis of academic self-concept dimensions: Synergy of person-and variable-centered approaches to theoretical models of self-concep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6(2), 191-225.
- Mason, T. B., Smith, K. E., Engwall, A., Lass, A., Mead, M., Sorby, M., Bjorlie, K., Strauman, T. J., & Wonderlich, S. (2019). Self-discrepancy theory as a transdiagnostic framework: A meta-analysis of self-discrepancy and psychopathology. *Psychological Bulletin*, 145(4), 372-389.
- Miller, J. D., Gaughan, E. T., Maples, J., & Price, J. (2011). A comparison of agreeableness scores from the Big Five Inventory and the NEO PI-R: Consequences for the study of narcissism and psychopathy. *Assessment*, 18(3), 335-339.
- Millon, T. (1981). *Disorder and Personality*. New York : wiley.
- Morf, C. C., & Rhodewalt, F. (2001). Unraveling the paradoxes of narcissism: A dynamic self-regulatory processing model. *Psychological Inquiry*, 12(4), 177-196.
- Muthén, B. (2004). Latent variable analysis. *The Sage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s*, 345(368), 106-109.
- Muthén, B., & Muthén, L. K. (2000). Integrating person centered and variable 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82-891.
- Ng, H. K., Cheung, R. Y. H., & Tam, K. P. (2014). Unraveling the link between narcissism and psychological health: New evidence from coping flexibi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0, 7-10.
- Nylund-Gibson, K., & Choi, A. Y. (2018). Ten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latent class analysis. *Translational Issues in Psychological Science*, 4(4), 440-461
- Ozimek, P., Bierhoff, H. W., & Hanke, S. (2018). Do vulnerable narcissists profit more from Facebook use than grandiose narcissists? An examination of narcissistic Facebook use in the light of self-regulation and social comparison theo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4, 168-177.
- Pacht, A. R. (1984). Reflections on perfection. *American Psychologist*, 39(4), 386.
- Park, L. E., & Crocker, J. (2008). Contingencies of self-worth and responses to negative interpersonal feedback. *Self and Identity*, 7(2), 184-203.
- Pincus, A. L., Ansell, E. B., Pimentel, C. A., Cain, N. M., Wright, A. G., & Levy, K. N. (2009). Initial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the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21(3), 365-379.
- Pincus, A. L., & Lukowitsky, M. R. (2010). Pathological narcissism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6, 421-446.
- Raskin, R., & Hall, C. S.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45,

- 590.
- Raskin, R., Novacek, J., & Hogan, R. (1991). Narcissistic self-esteem manag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6), 911-918.
- Raskin, R., & Terry, H. (1988). A principal-components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5), 890-902.
- Rhodewalt, F., & Morf, C. C. (1998). On self-aggrandizement and anger: A temporal analysis of narcissism and affective reactions to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672-685.
- Rogers, C. R., & Dymond, R. F. (Eds.). (1954). *Psychotherapy and personality chang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osenthal, S. A., & Hooley, J. M. (2010). Narcissism assessment in social-personality research: Does the association between narcissism and psychological health result from a confound with self-esteem?.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4*, 453-465.
- Samuel, D. B., & Widiger, T. A. (2008). Convergence of narcissism measures from the perspective of general personality functioning. *Assessment, 15*, 364-374.
- Stinson, F. S., Dawson, D. A., Goldstein, R. B., Chou, S. P., Huang, B., Smith, S. M., Ruan, W. J., Pulay, A. J., Saha, T. D., Pickering, R. P., Grant, B. F. (2008). Prevalence, correlates, disability, and comorbidity of DSM-IV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results from the wave 2 national epidemiologic survey on alcohol and related conditions.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9*(7), 1033-1045.
- Tritt, S. M., Ryder, A. G., Ring, A. J., & Pincus, A. L. (2010). Pathological narcissism and the depressive temperament.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22*(3), 280-284.
- Twenge, J. M., & Campbell, W. K. (2009). *The narcissism epidemic: Living in the age of entitlement*.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Yeomans, F. E., Clarkin, J. F., & Kernberg, O. F. (2015). *Transference-focused psychotherapy f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clinical guide*.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Inc.

원 고 접 수 일 : 2024. 04. 08

수정원고접수일 : 2024. 05. 07

게 재 결 정 일 : 2024. 05. 21

## Latent Profile Analysi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fferences in Actual-Ideal Self-Discrepancy and Emotion Regulation Style

Doyeon Keum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Master

Kumlan Yu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rofessor

This study utilized Latent Profile Analysis (LPA) to identify subgroup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and assess differences in actual-ideal self-discrepancy and emotion regulation style. An online survey targeting men and women in their 20s and 30s was conducted, with data from 1,013 participants analyzed.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SPSS 21.0, while LPA was performed using Mplus 8.0. One-way ANOVA and post-hoc test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actual-ideal self-discrepancy and emotion regulation style among the latent profile group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LPA identified four type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non-narcissistic, grandiose, vulnerable, and mixed. Secon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actual-ideal self-discrepancy and emotion regulation style according to the latent profile groups. The findings are discussed in terms of their implications, study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narcissistic personality, self-discrepancy, emotion regulation style, latent profile analysis